
I.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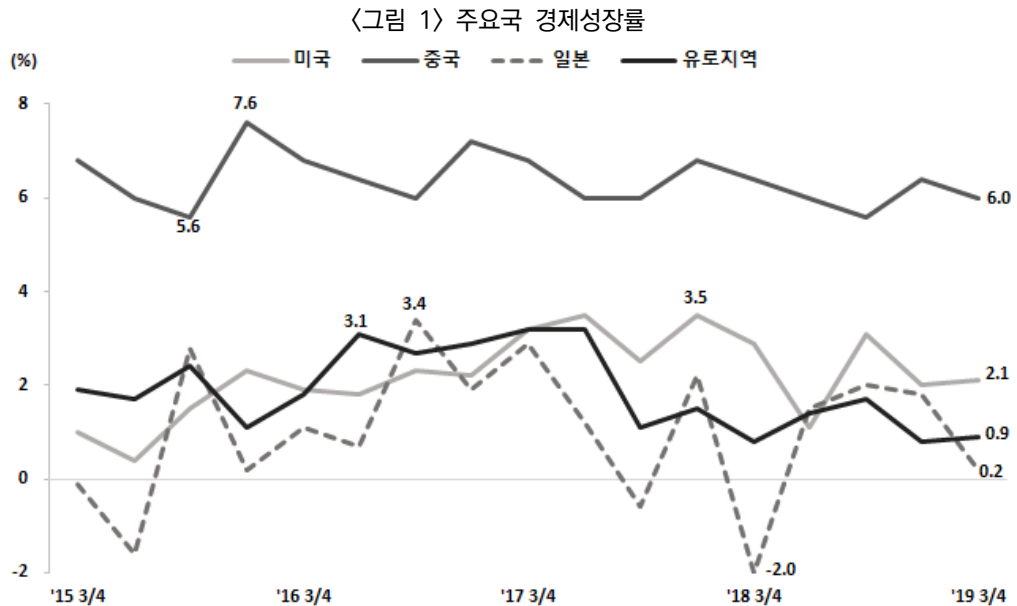
- 가장 큰 하방위험인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이며,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50 이하로, 제조업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음
- 우리나라 경기는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0%대로 매우 저조함
 - 주요 국내기관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2.3%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금리는 장기물 위주의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되고 있음
 - 미국·이란 갈등, 브렉시트 등 다양한 하방리스크로 인해 장기물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4분기 코스피(KOSPI)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국내 기업실적 회복 기대감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0~2,215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진행 양상, 홍콩 대규모 시위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150~1,210원 사이에서 움직임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4분기 25.7%를 기록함

1. 경제

가. 세계경제

■ 주요국 중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미국과 유로지역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세계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으로 보임

- 2019년 3/4분기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하여 각각 2.1%, 0.9%를 기록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4%p, 1.6%p 하락한 6.0%, 0.2%를 기록함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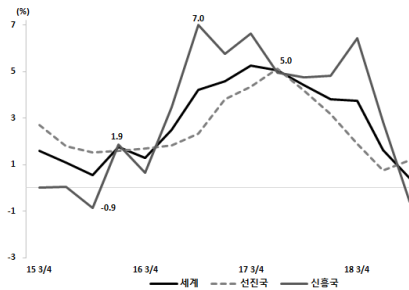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9. 11); 중국 국가통계국(2019. 10); 일본 내각부(2019. 11); Eurostat(2019. 12)

■ 2017년 3/4분기 이후 둔화된 세계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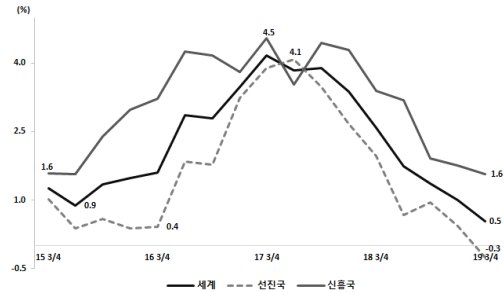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증가한 0.1%를 기록하였지만,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주요국 무역갈등, 중국과 대만·홍콩의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8%p 하락한 -2.7%를 기록함

- 2019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각각 0.7%p, 0.2%p 하락한 -0.3%, 1.6%를 기록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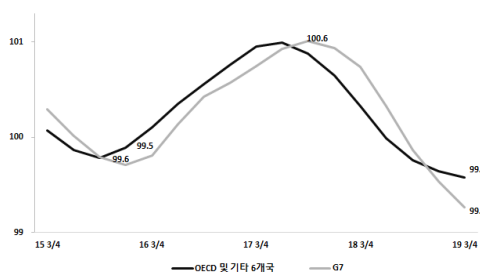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1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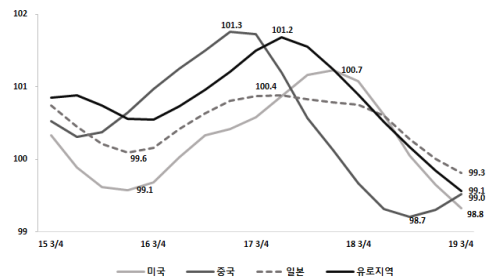
- 세계 경기선행지수¹⁾는 2017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여, 세계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9년 3/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0으로 전분기보다 0.2 하락하였고,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은 각각 0.4, 0.2, 0.2 하락한 98.8, 99.3, 99.1을 기록함
- 한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 대비 0.2 상승한 99.0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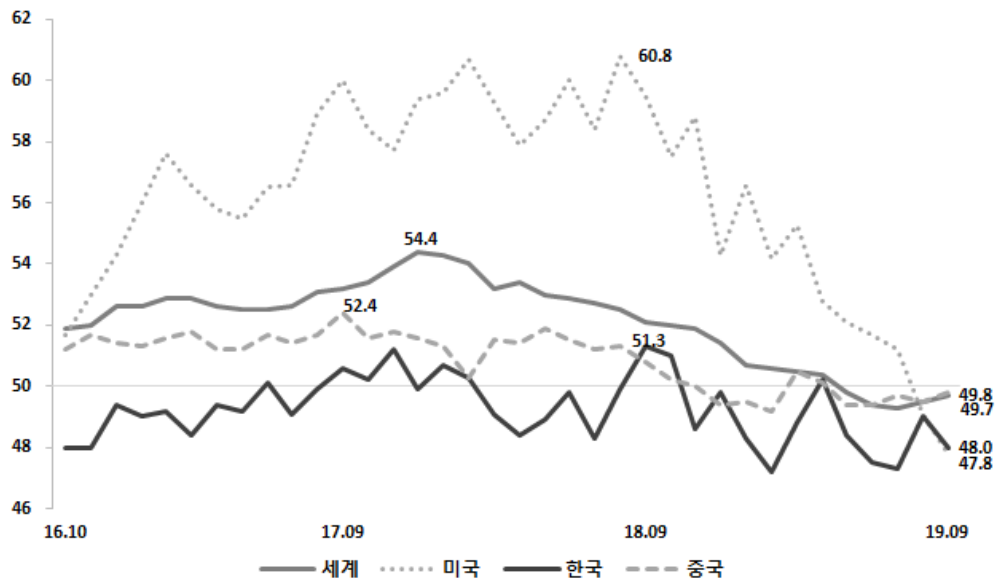
자료: OECD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락을 의미함

■ 세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2019년 7월 최근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50 이하로, 제조업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음

○ 2019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49.7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함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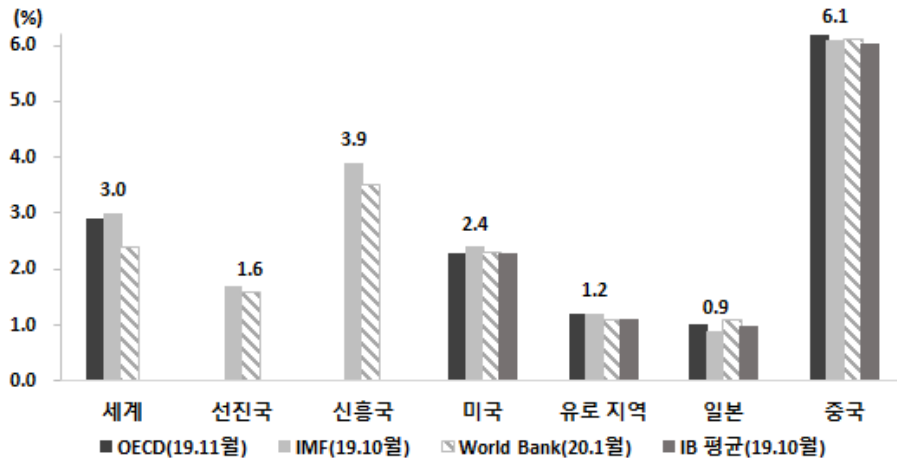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 무역분쟁 장기화, 신흥국 금융시장 취약성 확대 등의 영향³⁾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 World Bank는 최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2%p 하향 조정하여 2.4%로 발표함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함

3) World Bank(2020. 1), *Global Economic Prospects*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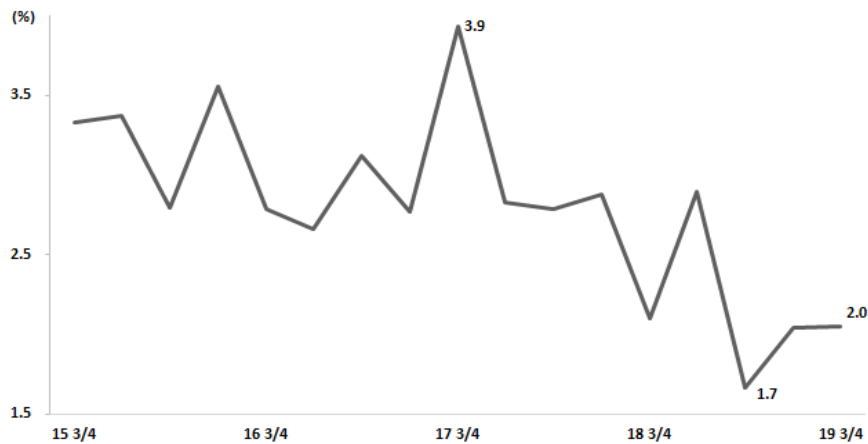
자료: IMF, OECD, World Bank, 4개 IB 평균임

나. 국내경제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9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2.0%를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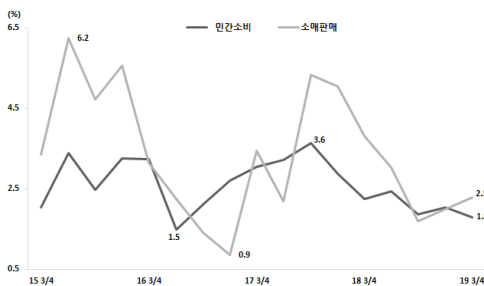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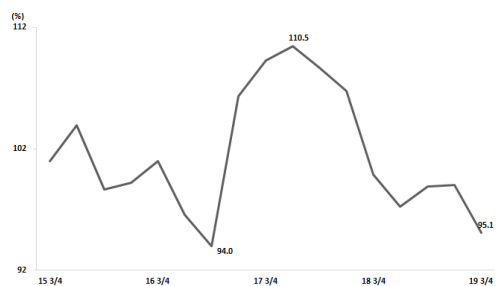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주요 경제지표 악화 등의 영향으로⁴⁾ 전분기보다 3.9 하락한 95.1을 기록함
- 다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소폭 반등하여 2.3%를 기록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은 1/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건설수주 및 기계수주도 부진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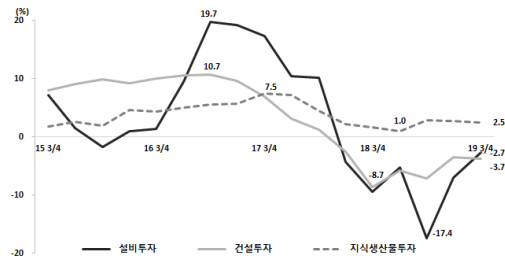
- 2019년 3/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3%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건설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여 각각 -3.7%, 2.5%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8월 및 9월 중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류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⁵⁾ 상승함
- 2019년 3/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0.6%를 기록하였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하여 -0.2%를 기록함
 - 건설수주 증가율은 9월 중 철도·궤도 등 토목 부문이⁶⁾ 크게 증가하여 상승함

4) 국회예산정책처(2019. 8), 『NABO 경제동향&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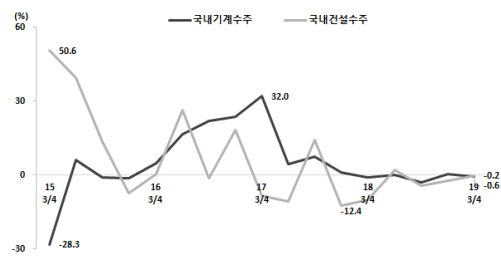
5)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19. 10),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6) 통계청 보도자료(2019. 10),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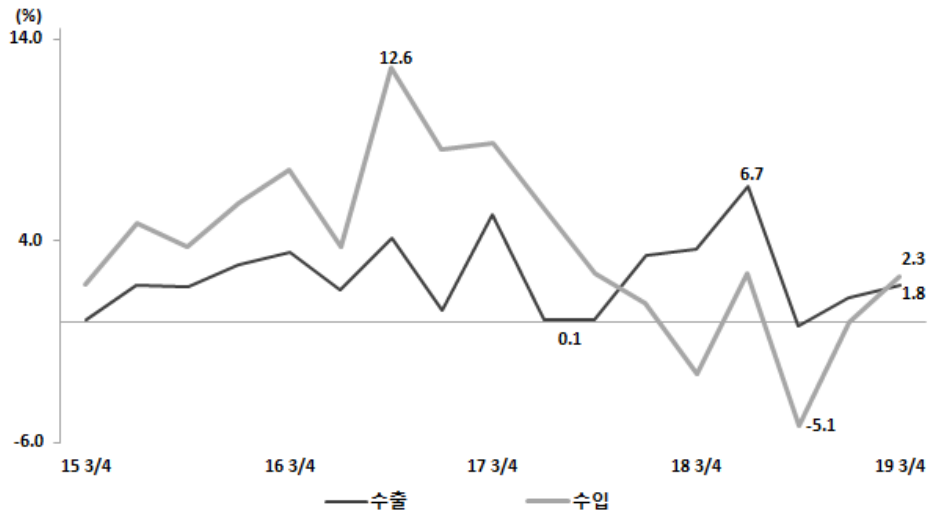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감
○ 미·중 무역갈등 및 한·일 관계 악화 등에 따른 전분기 기저효과와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019년 3/4분기 수출 증가율은 0.6%p, 수입 증가율은 2.3%p 상승하여 각각 1.8%, 2.3%를 기록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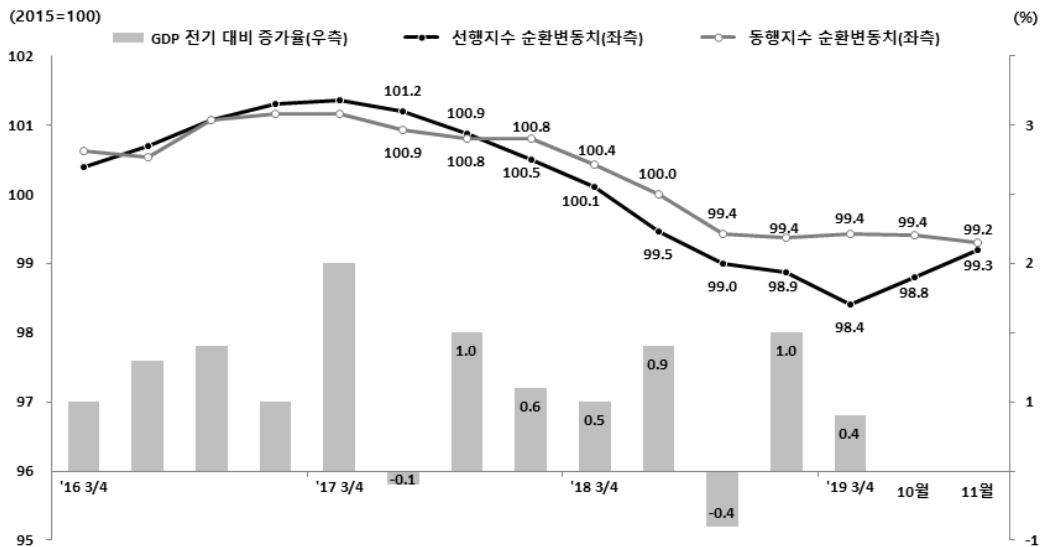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분기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9년 3/4분기 경기 동행지수⁷⁾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같은 99.4를 기록함
- 2019년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및 내수출하지수 등의 감소로⁸⁾ 전월 대비 0.2 하락함
- 2019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⁹⁾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 기대지수 등의 하락으로 전분기보다 0.5 하락한 98.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스피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¹⁰⁾ 상승하여 11월에 99.3을 기록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19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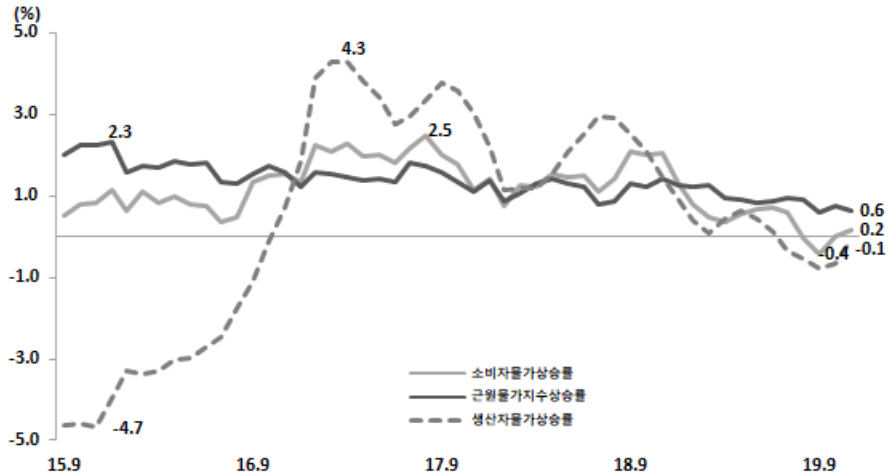
■ 2019년 9월 역대 최저치인 -0.4%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월에 0.2%로 상승하였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하락세임

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9)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10)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률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함

- 농산물 가격 상승률¹¹⁾: -13.8%(‘19. 9) → -7.5%(‘19. 10) → -5.8%(‘19. 11)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19년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입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2018년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²⁾들도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저 1.8%에서 최고 2.0%로 전망함

○ 2020년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수출 및 민간수요 회복으로 2019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2),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 9개 IB(Barclays, BoA Merrill Lynch, 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 J.P. Morgan, HSBC, Nomura, UBS)의 2019년 11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F) ¹⁾		2020(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3.1	2.7	2.0	2.0	2.3	2.3
민간소비	2.6	2.8	1.9	1.9	2.1	2.1
설비투자	14.6	-2.4	-7.8	-7.0	4.9	8.0
지식생산물투자	3.0	2.2	2.7	2.6	3.4	4.1
건설투자	7.6	-4.3	-4.3	-4.1	-2.3	-3.0
상품수출	3.8	3.3	-0.4	-0.4	2.2	2.8
상품수입	7.4	1.6	-1.6	-0.9	2.4	3.8
실업률	3.7	3.8	3.8	3.8	3.7	3.5
소비자물가	1.9	1.5	0.4	0.4	1.0	0.6
경상수지	752	764	570	575	560	589
상품수지	1,136	1,119	775	778	800	767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384	-355	-205	-203	-240	-179

주: 1) 2019(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19.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19. 11),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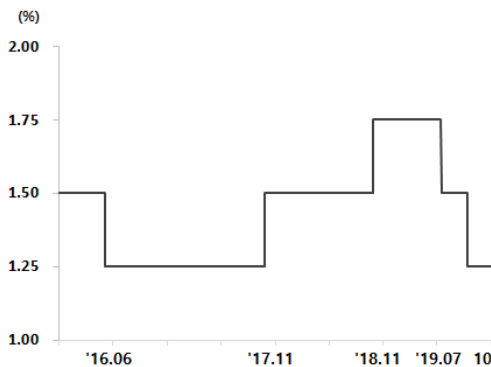
2. 금융

가. 금리

■ 2019년 11월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동결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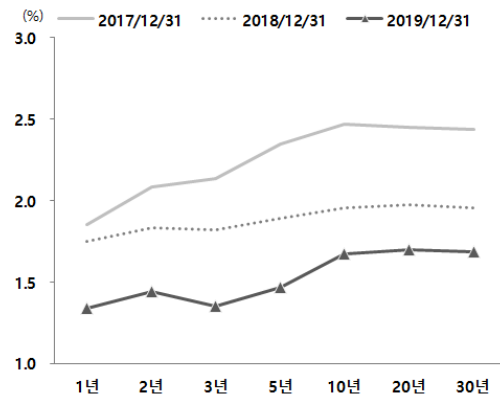
- 국내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 분쟁 이슈, 중국경제 둔화 등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20년 경제성장률(0.2%p)과 소비자물가상승률(0.3%p)을 하향 조정함
 -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행은 현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우나 지난 두 차례의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함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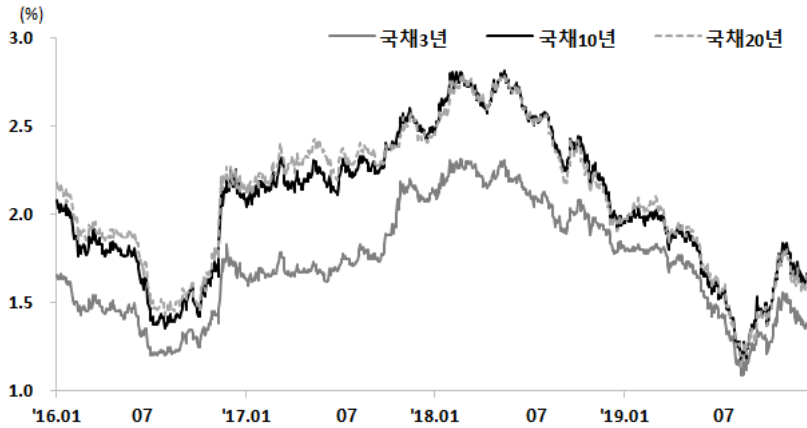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정부의 예산 확대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 증가가 예상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단,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따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는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13) 한국은행(2019. 11. 29), “2019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회의록”

〈그림 18〉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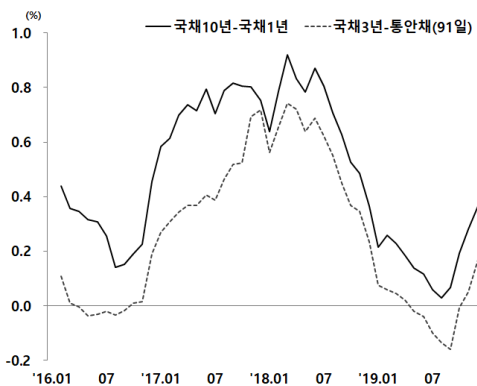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으며, 신용스프레드도 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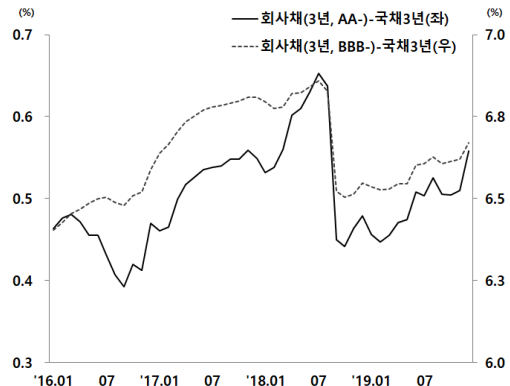
-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및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¹⁴⁾ 등 대외여건 개선과 정부의 국채 발행규모 확대 우려 등의 영향으로 11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84%까지 상승함
- 최근 업황 부진과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및 예상부도 확률 등의 움직임에 따라 신용등급의 하향 압력이 높아져 신용스프레드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¹⁵⁾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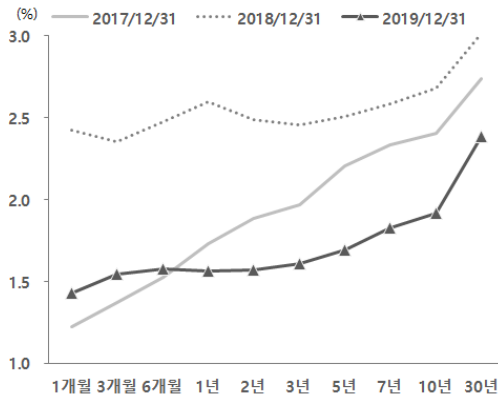
14) 12월 미국 서비스업 PMI 예비치 상승(51.6 → 52.2), 12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 예비치 상승(51.9 → 52.4), 11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폭 확대(4.7% → 6.2%, yoy), 소매판매 증가폭 확대(7.2% → 8.0%, yoy) ; 케이프투자증권(2019. 12. 17), 「국내외 경제이슈」

15) 한국은행(2019. 12. 26),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일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축소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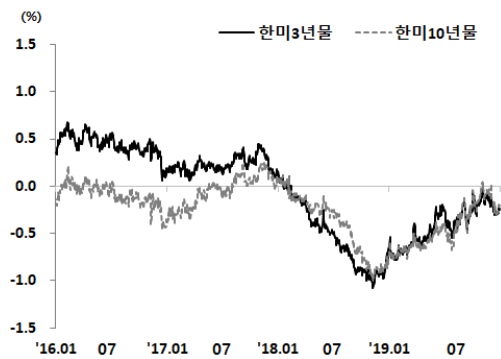
-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18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어 경기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3년 이하 단기물은 소폭 하락하고 10년 이상 장기물은 상승함
- '19년 11월 실업률은 3.5%로 '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8.2%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¹⁶⁾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년 1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분기보다 상향 조정함

- 2020년 1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1.82%, 국내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1.78%, 1.47%로, 지난 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금리		국내 국채(10년) 금리		국내 국채(3년) 금리	
'19. 4Q	'20. 1Q	'19. 4Q	'20. 1Q	'19. 4Q	'20. 1Q
1.79	1.82	1.66	1.78	1.41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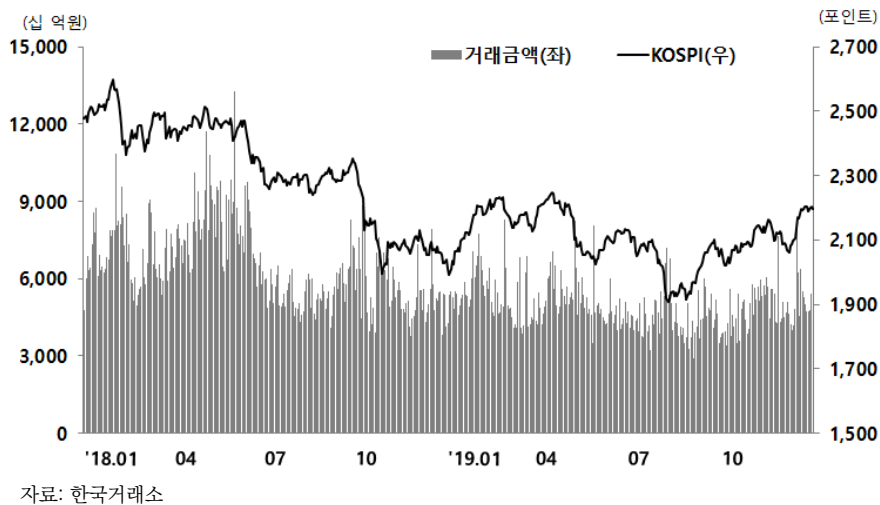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2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16) 미국 상무부(<https://www.census.gov>)

나. 주가

- 4/4분기 코스피(KOSPI)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국내 기업실적 회복 기대감¹⁷⁾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2,010~2,215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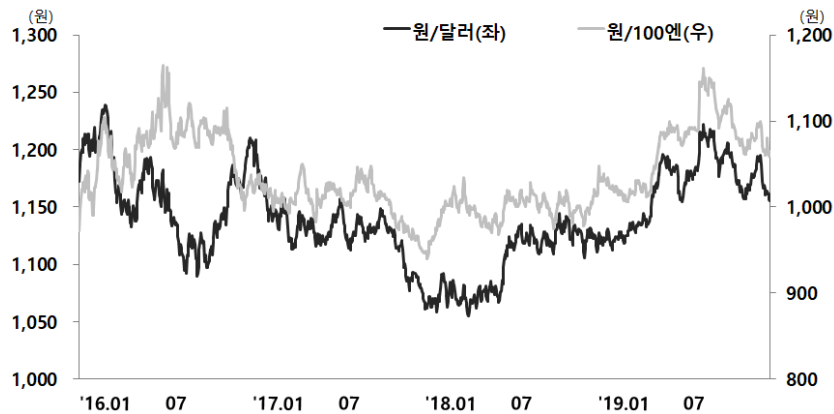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진행 양상, 홍콩 대규모 시위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1,150~1,210원 사이에서 움직임
 - 브렉시트 기한 연기,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어 11월 원/달러 환율은 1,150원까지 하락함
 - 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이 환율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율 변동폭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14년부터 '18년까지 환율의 연저점과 연고점의 차이는 평균 150원인 데 반해, '19년에는 109원으로 축소됨

17) '20년 기업이익증가율 전망치(반도체) 39.7%(9월) → 43.7%(10월) → 48.1%(11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9. 12), 「금융시장브리프」

■ 세계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60원을 하단으로 등락을 반복함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가세하며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년 1분기에 원/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 엔/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9. 4Q	'20. 1Q	'19. 4Q	'20. 1Q	'19. 4Q	'20. 1Q
Standard Chartered	1,176	1,180	109	104	1,11	1.14
JP Morgan Chase		1,165		109		1.12
Barclays		1,180		107		1.10
Citi group		1,225		105		1.10
Morgan Stanley		1,135		108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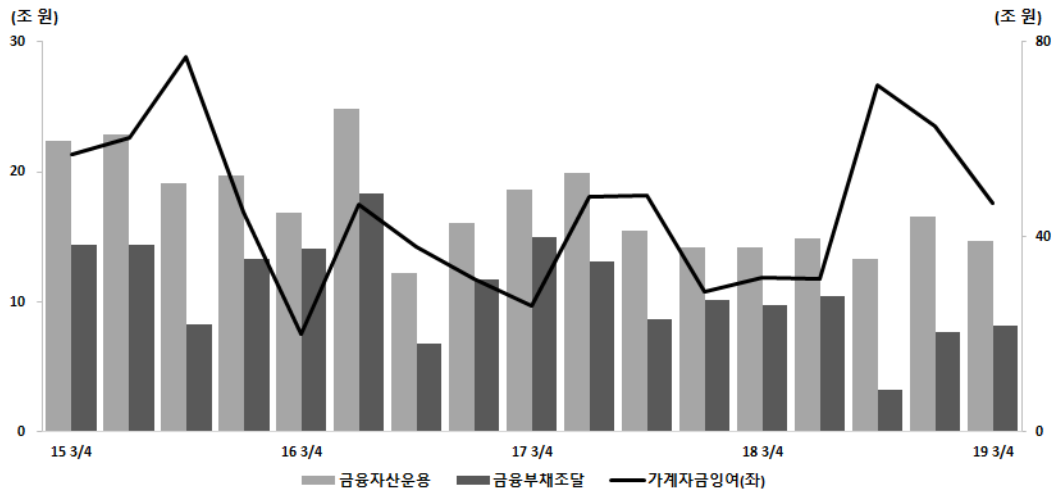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자금흐름

■ 2019년 3/4분기 가계부문¹⁸⁾의 자금잉여¹⁹⁾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함

○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부채 증가폭이 제한되었으나, 금융자산 거래도 감소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이후 가계부문의 금융상품거래 규모가 줄고 있으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냄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3/4분기 25.7%를 기록함

○ 불확실성이 확대된 2019년 들어 현금 및 예금 거래 비중이 높아짐

18)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9)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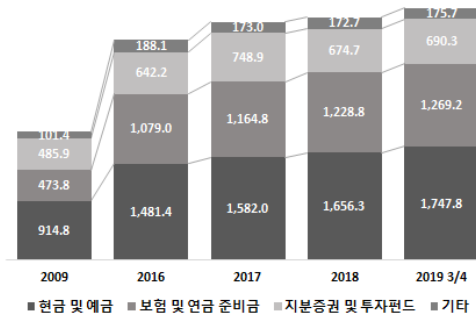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4	38.4	13.9	(39.3)	-8.8	-4.9	0.3	1.8	-5.3	35.4
2019 2/4	25.7	14.0	(31.7)	-1.7	-1.2	0.6	4.6	2.1	44.1
2019 3/4	28.1	10.1	(25.7)	0.7	0.5	0.6	-1.2	0.4	39.3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19년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2018년에 비해 0.2%p 감소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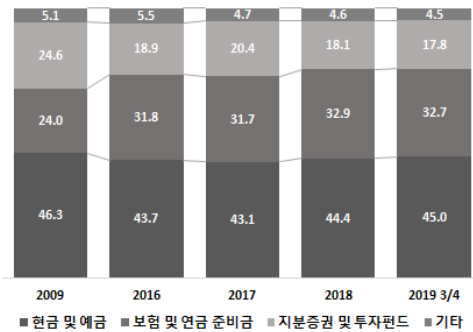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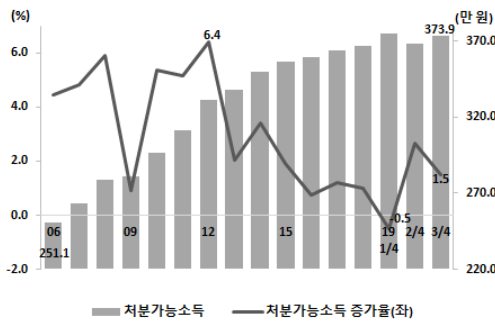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2/4분기 2.7%로 반등하였다가 3/4분기 1.5%를 기록하며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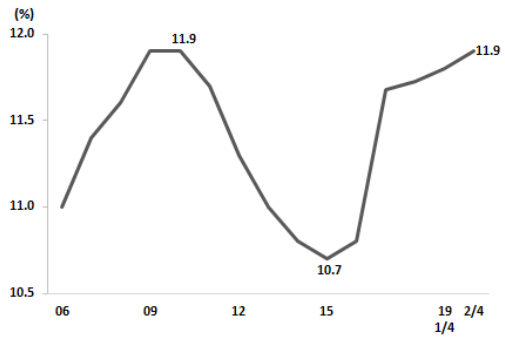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2/4분기 11.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019. 12. 26 금융위원회)

- 20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 및 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중 개정하고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함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2019. 12. 18 금융위원회)

- 보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전화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의무 예외로 변경, 외화증권 대여거래 허용,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 매도 허용 등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 개선,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 포지션 산출 방식 등을 개선함

■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2019. 12. 11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 의체」를 개최하고, 공·사보험 상호작용 연구결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2019. 12. 5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12월 8일부터 연장 및 시행함

■ 외국 보험감독당국과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 강화(2019. 11. 14 금융위원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1월14일 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함

■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2019. 11. 7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운영,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일괄 확인하여 보험료를 환급하고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함

■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전면 도입(2019. 11. 6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보험 및 은행업계가 가상계좌로 실제 보험료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함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2019. 10. 28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2019. 10. 23 금융감독원)

- 2020년 상반기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 예정임

■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영향평가 관련,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2019. 10. 14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영향평가 결과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함